

## 의복 스타일에 따른 인상 형성에서의 순서효과

김경원 · 탁혜령 · 고애란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환경학과

### The Order Effect on Impressions Formed by the Function of Clothing Style

Kyung-Won Kim · Hye-Ryung Tark · Ae-Ran Koh

Dept. of Clothing & Textiles, College of Human Ecology, Yonsei University  
(2004. 3. 19. 접수)

####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clothing style and the order effect on impression formation. The instrument of this study consisted of response scales and stimuli. Fifty-one items of 7-point semantic differential scales, 9 items of demographic traits, and 4 items of subjective evaluation scales were developed. Stimuli were color pictures of a model wearing each of two clothing styles(mannish style, feminine style). The sample include 56 male and female subjects in their twenties and thirties. The experimental design was within-subject design and the half of the sample responded to the mannish style first and the other half responded to the feminine style first. Responses to the semantic differential scales were factor analyzed, and seven factors were identified: intellectuality, sensibility, activity, modesty, competence, display, keennes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mannish style and feminine style in impression of wearer's age, job, and physical attractiveness as well as wearer's intellectuality and sensibility. It was revealed that the first impression and second impression of wearer's intellectuality, sensibility, modesty, competence, display were differed by the function of the order of stimuli shown to the subjects. Both primacy effect and recency effect of order effect were confirmed, and especially negativity effect was influenced prominently on impression formation.

**Key words:** Clothing style, Impression formation, Negativity effect, Order effect; 의복 스타일, 인상 형성, 부정적효과, 순서효과

#### I. 서 론

현대 사회가 발달하고 더욱 복잡 다양해지면서, 현대인들의 생활과 라이프 스타일도 급변하였다. 특히, 취미 활동이나 학습을 위한 동호회, 학원, 문화센터 등의 소모임이나 남녀의 사교성 만남, 모임 등이 많아지고 활발해지면서, 이런 만남이나 모임에서 전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동성이나 이성간의 교우관계를 형성하고 발전시키기도 한다. 이렇듯 표면적이고 유행적인 오늘날의 사회에서 인상은 상대방을 인지하는 유일한 것으로(박성은, 1993), 타인을 판단하고

이후의 관계를 형성하거나 지속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첫만남에서 의복은 착용자의 일부분으로써 지각되어지며, 다른 직접적인 단서-말투나 행동 등-이 제한된 상태에서 시각적, 비언어적 상징으로써 사용되어진다. 더욱이, 개별적 만남이 아닌 단체 모임에서는 직접적인 접촉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타인에 대한 인상을 형성하기 위해 외모와 의복과 같은 두드러진 단서가 첫인상에 더욱 중요하게 작용하며, 몇 번의 만남이 거듭되면서 첫 만남에서 형성된 인상은 일관성 있게 유지되거나 새로운 단서들에 의해 수정, 변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기존의 인상 형성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처음 형성된 인상이 일관성 있게 유지 된다’는 전제 하에 첫 인상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왔으며, 특히 첫인상 형성은 동적 단서가 없을 때, 외모나 의복과 같은 정적 단서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도 다른 사람에 대한 일관된 인상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 일관성(consistency)이란 대인지각과 대물지각 사이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으로 대물지각은 사물의 크기, 무게, 생김새 등을 각각 독립적으로 지각하는 반면, 대인지각은 그들 특질을 하나로 통합하여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그 사람을 특징짓는다(강혜원, 1995). 또한, 일단 형성된 인상은 쉽게 변하지 않는데, 선택된 지각과정을 통하여 불일치하는 정보를 무시함으로써 이미 형성된 인상의 인지적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한다(김정자 외, 2002). 그러나, 소모임이나 단체모임에서 다음의 만남에서도 직접 접촉이 제한적인 경우, 다음 만남에서의 의복 단서는 또 다른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처음 형성된 인상과 유사한 이미지의 의복 단서를 착용한 경우라면, 첫인상은 일관성 있게 유지되며 더욱 강화될 것이지만, 첫인상과 상호모순 되는 이미지의 의복 단서를 착용했다면, 첫인상이 유지될지 수정될지는 지각자의 판단에 의존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익명성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크고 작은 모임 내에서 타인에 대해 형성하는 인상의 다양한 차원을 알아보고, 첫인상 형성 이후 상반된 의복 스타일에 의해 형성되는 2차 인상에 변화가 있는지, 이러한 변화는 의복스타일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의복 단서가 제시되는 순서에 의한 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의복에 의한 인상 형성

실제 그대로의 사물, 인물이 아닌 인간의 감각체에 주어지는 정보를 인식하는 지각과정에서 지각대상이 사람인 경우를 대인지각(person perception)이라 하며, 그 대상인물의 심리적 소질에 관한 모든 것을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정양은, 1982). 한편, 사람들이 타인에 대한 정보의 의미를 조직화하고 해석하는 복잡한 인지 과정을 대인지각의 맥락에서 사회인지(social

cognition)라고 하는데, 두드러진 단서를 중심으로 선택적으로 지각하여 인상을 형성하며, 부분적인 단서로부터 타인에 대한 정보를 형성할 때 일련의 지각된 성격 특질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내현성격 이론에 의해 추론될 수 있으며, 지각자는 정보를 즉각적이고 자발적인 과정으로 범주화하게 된다. 즉, 두 사람은 처음 만났을 때 서로 첫인상을 형성하는데, Gordon Allport는 이에 대하여 ‘아주 짧은 시간동안 시각을 통하여 지각이라는 복잡한 두뇌작용이 일어나서 30초 동안 처음 본 사람의 성별, 나이, 체격, 국적, 직업, 사회계층이 판단되며, 성격, 우월성, 깔끔함, 신뢰감, 성실성까지도 평가된다’고 하였다(Horn&Gurel, 1981). 이렇게 형성되는 타인에 대한 첫인상은 그 후에 오는 단서를 무시하거나 해석할 수 있는 어떤 틀을 제공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따라서 첫인상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중요한 결정요인 중 하나가 되는 것이다(강혜원, 1995).

의복은 첫인상 형성 과정에서 보다 큰 의미를 갖는다. 모르는 사람이 서로 만났을 때, 우선 상대방을 판단하는 기준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단서에 의하여 평가된다. 의복은 착용자를 지각하는 데 있어서 외모와 아울러 중요한 단서가 되며, 착용자에 대한 무엇인가를 전달해 주는 상징적 역할을 한다. 의복이 주는 정보는 성별, 연령, 역할과 지위, 착용자의 상황 뿐 아니라 개인의 내면적 측면, 즉 성격, 태도, 가치관, 능력까지 판단하게 한다. Damhorst(1990)는 의복과 대인지각에 관한 869개 연구를 내용 분석한 결과, 의복을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 유형 중 가장 많은 것이 성격특질(70.2%)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Burns와 Lennon(1993)이 첫인상에 사용되는 개인적 정보를 자유기술식으로 응답하게 하여 내용 분석한 결과는 이와 달랐는데, 인상 차원을 Park의 5개 범주에 따라 분류하였으며, 각 범주는 성격특질 29%, 행동과 활동성 16%, 태도, 감정/신념 15%, 인구통계적 정보 11%, 신체, 생물학적 특성 30%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형성되는 인상이 범주별로 성격 묘사가 65%, 활동성이 23%, 나머지는 각각 5% 이하로 묘사되었다고 밝힌 Park의 연구결과와 비교할 때, 첫인상에서는 신체, 생물학적 특성에 더 관심을 가지며, 성격특질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은 때문일 것으로 판단되었다.

지금까지 의류학 분야에서 인상 형성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지만, 대부분 첫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복, 착용자, 상황, 지각자 특성 등-에 관한 것으로, 첫인상에만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이처럼 인상 형성에 관련된 연구는 처음에 형성된 인상, 즉 첫인상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지지만, 첫인상이 이후 얼마나 유지되며, 다음 인상 형성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서는 연구가 매우 미흡하다.

그러므로, 의복을 통해 형성되는 첫인상의 지속성과 변화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2. 인상 형성 이론

인상 형성에 대한 이론은 크게 총체적 접근과 수학적 접근 이론으로 나뉘어 연구가 진행되어왔으나, 조공호에 의하면 전반적인 인상 형성에 있어 두 가지 접근은 대립된 것처럼 보이지만, 각각의 초점이 다를 뿐이라고 하였으며(강혜원, 1995), 의복 착용자에 대한 인상 형성은 형태주의적 접근에 의해 더 적절히 설명될 수 있다.

총체적 접근은 형태주의 심리학을 모태로 Asch(1946)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하나의 정보는 다른 정보와의 관련성에 따라 그 의미가 변한다고 보고, 최종인상은 각 정보를 모두 합친 것 이상이 된다고 한다. 이 접근의 연구로는 순서효과, 배경효과 등에 관한 것이 있다.

### 1) 순서효과

순서효과(order effect)는 정보가 주어진 순서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다는 것으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정보 중에 어느 것을 먼저 또는 나중에 제시하는가에 따라서 인상에 주는 영향이 다르다는 이론이다. Coursey (Chowdhary에서 재인용, 1988)에 따르면, 첫인상 이론은 초두효과(primacy effect)와 최신효과(recency effect)의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는데, 초두효과는 대상 인물의 첫인상으로부터 평가를 끌어오는 인지적 과정에 관한 것으로, 먼저 주어진 특질에 대한 정보가 뒤에 오는 것보다 훨씬 우세하다는 것이다. 반면, 최신효과는 각각자가 판단하는 인물과의 마지막 만남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상황에 따라 사람들은 나중에 주어진 특질에 의해 인상 형성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속적으로 만나는 사람들 간에도 적용된다. Bernadette와 Park의 연구(김청자 외에서 재인용, 2002)에서는 서로 모르는 몇 명의 작은 집단을 7주간 계속 만나게 하였고, 그 때마다 상대방의 인상을 기술하게 하였는데, 이 때 처음 만났을 때 상대방에 대한 미미한 정보에 기초한 인상이 변하지 않고 지속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Chowdhary(1988)는 미국 대학의 인도인 강사로 하여금 서양의복과 인도 전통의복을 착용하게 하여 대학생들이 강사의 능력을 평가하도록 하였는데, 두 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학기 전반부에는 한 집단에서는 서양의복을, 다른 집단에서는 인도 전통의복을 착용하고, 학기 후반부에는 두 집단 모두 서양의복을 착용하게 하여 강사의 능력을 평가한 결과, 전반적으로 서양의복에 대해 더 호의적이었으며, 후반부의 평가에서 주로 초두효과가 나타났고 부분적으로 최신효과가 나타났다.

### 2) 부정 효과

인상 형성 장면에서의 부정적 효과(negativity effect)는 지각대상인물이 정(正)적 특성과 부정 특성을 공유하고 있을 때 최종적으로 평가되는 인상에 부정 특성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하는데(조공호, 김인자, 1987), 이는 배경효과 중, 전경-배경가설(figure-ground hypothesis) 등에 의해 그 원인이 설명되고 있다. 전경-배경가설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정적 특성보다는 부정 특성을 접하는 빈도가 낮으므로, 인상판단 과정에서 정적 특성은 배경자극으로, 부정 특성은 전경자극으로 부각되어, 부정 특성의 정보가 더 크기 때문에 부정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인상 형성 과정에서는 이러한 부정효과가 일반적으로 관찰되고 있으며(Fiske, 1980), 따라서 이를 기초로 부정 인상이 정적 인상보다 일관적이거나(Hamilton & Zanna, 1972) 더 변화되기 어려운(Hodges, 1974) 까닭을 설명하거나, Anderson의 가중평균모형 등이 나오게 되었다(조공호에서 재인용, 1988). 박신자(2000)도 인상 형성에서 부정적 정보가 최종인상에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으며, 반전된 부정적 인상은 긍정적 인상보다 더 변화되기 어렵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인상 형성 이론들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여러 가지 단서들을 통해 형성되는 인상은 단순하거나 고정적이지 않으므로, 인상 형성 연구 시 제시하는 단서들의 순서, 상황적 맥락, 부정 특성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인상 형성 연구들의 대전제인

첫인상의 지속성과 변화 가능성에 대해 의복 단서가 제시되는 순서에 의한 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첫째, 의복 스타일을 통해 형성되는 인상의 다양한 차원을 밝히고,
- 둘째, 의복 스타일에 따른 인상의 차이를 살펴보고,
- 셋째, 첫인상 형성 이후 상반된 다른 의복 단서에 의해 형성되는 2차인상에 변화가 있는지의 의복 단서가 제시되는 순서를 달리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 2. 측정도구

질문지의 구성은 상반된 의복 스타일을 착용한 두 개의 사진 자극물을 차례로 제시하여 첫인상에 대한 평가와 2차인상에 대한 평가를 하게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응답자의 특성을 묻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 1) 자극물 설계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연구설계는 소모임의 참석자들이 처음 만나는 것으로 가정된 상황에서 첫 번째 사진 자극물을 제시하고 지각대상자에 대해 형성된 인상을 측정 한 후, 10분 정도의 시간 간격을 두고 두 번째 사진 자극물을 제시하여 다시 지각대상자에 대한 인상을 측정하였다. 이때, 사진 자극물의 의복착용자는 동일한 인물로, 키 166cm에 보통 체격과 외모를 가진 29세 여성이었다.

두 개의 사진 자극물에서 지각대상자가 각각 착용한 의복은 의도적으로 상반된 이미지를 선택하였는데, 이는 사람들은 타인에 대해 형성된 인상을 일관되게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어떤 인상을 형성하고 나면, 모순 되는 정보가 있더라도 그것을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다(오세진, 1999)고 하는 기존 가정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의복의 상반된 이미지는 정인희, 이은영(1993)의 의복이미지의 계층구조에 따라 최종적으로 상대화되는 우아하고 여성적인 이미지와 남성적이고 단순한 이미지를 선택하였으며, 연구원의 판단 및 일반인과 전문인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각각의 이미지를 표현한다고 생각하는 두 종류의 의복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이 때, 색채에 의한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의복 색을 감색으로 통일하였으며, 스타일만으로 상반된 이미지를 표현하였는데, 페미닌 스타일은 플레이어라인의 원피스이고, 매니쉬 스타일

은 슬랙스 슈트 차림이었다.

의복을 제외한 인물의 기타 외모단서(헤어스타일 등)는 최대한 통제하였고, 사진은 배경효과(상황적 맥락)를 최소화하여 칼라사진으로 제작하였다. 순서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피험자에 대한 자극물의 제시 순서는 두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즉, 자극물 제시 A의 경우는 매니쉬 스타일의 의복을 착용한 사진을 먼저 제시하여 첫인상을 측정 한 후, 페미닌 스타일의 의복을 착용한 사진을 제시하여 2차인상을 측정하였으며, 자극물 제시 B의 경우는 페미닌 스타일을 먼저 제시하고 매니쉬 스타일을 그 다음에 제시하였고, 응답자는 이 중 하나의 경우에만 응답하도록 하였다.

### 2) 측정 척도

인상 측정도구는 Burns와 Lennon(1993)의 연구를 토대로 하여 성격특질, 활동성, 태도/감정, 인구통계학적 정보, 생물학적 정보의 5가지 범주로 구성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Park의 다섯 가지 범주에 근거하여 인상의 하위차원으로 대상자에 대한 성격인상,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지각자의 주관적 평가 등을 측정하였는데, 활동성과 성격 특질을 묶어 성격과 관련된 어휘를 포괄적으로 선정하였고 생물학적 특성을 포함한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지각자의 주관적 평가에 관련된 질문들로 구성하였다. 성격인상의 측정 문항은 박성은(1993)의 측정도구를 기초로 하여 한덕웅(1993)의 성격특성 용어를 포함하였으며, 기타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포괄적인 형용사쌍 51문항을 7점 의미미분 척도로 구성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는 교육수준, 직업, 결혼여부, 형제관계, 경제력 등을 포함하였으며, 생물학적 특성으로는 지각대상자에 대하여 추측할 수 있는 성, 연령, 키, 신체매력도를 포함하여 자유기술식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지각자 개인의 선호와 관련된 태도/감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4문항의 주관적 평가를 질문하였는데, 이는 평가적 차원이 첫인상의 가장 중요하고도 강력한 측면으로, 일단 '좋다' 또는 '나쁘다'는 인상을 갖게 되고 나면, 그 측면과 전혀 관계없는 다른 측면 및 다른 상황의 인상까지 평가적인 차원의 판단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Sears, Feedman & Peplau, 1985)는 것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 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는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20

대와 30대 성인남녀 56명이었으며, 이는 본 연구가 연구 설계상 어떤 소모임의 참석자들이 타인의 인상을 형성하는 상황으로 가정하였으므로, 자극물의 지각대상자와 동일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대로 한정된 것이다. 표본은 동일한 성 비율로 할당 표본 추출하여 두 집단으로 나누었으며, 자극물 제시 두 가지 유형 중 하나에만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구분된 두 집단은 연령이 제한적이고 성별 비율이 동일하므로, 지각자의 특성이 체계적으로 반영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피험자의 특성은 22세에서 37세 사이의 성인으로 평균 28.23세였으며, 대졸 이상의 직업을 가진 미혼자가 많았고, 경제력은 대부분 중간 이상으로 평가하였다.

자료수집은 2003년 6월 20일에서 23일 사이에 연구원들의 통제하에 응답자들과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빈도분석, 교차분석, 요인분석, 상관관계, t-test, 신뢰도 검증 등의 통계분석을 사용하였다.

#### IV. 결과 및 논의

타인에 대하여 형성되는 인상의 차원을 크게 지각 대상자의 성격 특성을 포함하는 인상 형용사쌍과 인

구통계학적 특성, 지각자의 개인적 선호와 관련된 주관적 평가로 나누어 결과를 고찰하였다.

#### 1. 성격인상의 요인과 인상 형성

##### 1) 성격인상 형용사의 요인

타인에 대하여 형성되는 인상 중 성격의 차원을 규명하기 위하여 51개의 인상 형용사쌍에 대해 회전에 의한 요인분석(Varimax Rotation, pc model, mineigen criteria)을 실시하였으며, Scree-test를 이용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7개의 인상 요인을 추출하였다.

성격인상의 요인 1은 설명량 12.48%로 논리적인, 믿음직한, 전문적인, 책임감있는, 지적인 등의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지적인 특질들과 관련되므로, '지적특성'으로 명명하였으며, 요인 2는 설명량 10.38%로 상냥한, 친밀한, 사교적인, 매력적인 등의 8문항으로 주로 대인관계와 관련한 특성으로, '정(情)적 특성'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1과 요인 2는 각각 조공호(1988)의 연구에서 인상 형성시 주된 단서로 사용되는 지적 특성과 정(情)적 특성에 부합된다. 요인 3은 외향적인, 대범한, 활동적인 등의 12문항을 포함하여 9.85%의 변량을 설명하므로, '활동성' 요인으로 명명하였고, 요인 4는 깨끗한, 예의바른, 단정한 등 5문항으로 '예

<표 1> 의복착용자에 대한 인상의 요인구조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요인 6	요인 7
요인 1: 지적특성							
논리적인 - 비논리적인	.768	-.058	.179	.218	-.013	-.011	.072
믿음직한 - 믿음직하지않은	.737	.185	.229	.066	-.093	.205	.137
전문적인 - 전문적이지못한	.710	.125	.220	-.129	-.079	-.157	-.013
책임감있는 - 책임감없는	.690	.041	.175	.314	-.044	-.078	-.070
지적인 - 지적이지않은	.595	.342	-.059	.328	.016	-.308	.129
절도있는 - 충동적인	.586	-.160	.127	.129	-.068	.318	-.050
이성적인 - 감정적인	.558	-.267	.091	.022	-.337	-.149	-.178
현실적인 - 이상적인	.540	.037	-.228	-.086	.056	-.105	.096
결단성있는 - 우유부단한	.530	-.160	.520	.135	-.063	.051	.138
안정된 - 변덕스러운	.520	.113	.452	-.058	-.031	-.225	.116
자신감있는 - 자신감없는	.495	.036	-.107	.295	-.229	.115	.048
차가운 - 따뜻한	.485	-.484	.143	-.072	-.216	-.061	.070
사회적인 - 비사회적인	.477	.339	.36	.052	-.169	.113	.342
성실한 - 불성실한	.439	-.126	.047	.233	-.206	.194	-.074
남성적인 - 여성적인	.418	-.386	.203	-.097	.237	.309	.029
실천적인 - 실천적이지않은	.414	-.151	.300	.312	-.093	.284	-.260

&lt;표 1&gt; 의복착용자에 대한 인상의 요인구조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요인 6	요인 7
요인 2: 정적 특성							
상냥한 - 무뚝뚝한	-.170	.754	-.053	.070	-.021	-.124	.010
친밀한 - 낯선	.137	.692	.079	.153	.167	-.181	-.054
사교적인 - 비사교적인	.243	.674	.129	-.150	.076	-.299	-.140
매력적인 - 매력적이지않은	.253	.636	.207	.131	.061	-.311	.124
관대한 - 이기적인	-.029	.567	.196	-.059	-.049	.270	-.243
개방적 - 보수적	-.151	.553	.171	-.035	.132	-.153	.239
세련된 - 촌스러운	.112	.499	.256	.170	.174	-.463	.109
명랑한 - 겸잡은	-.001	.498	.226	.022	.429	-.185	-.203
겸손한 - 자만심강한	-.146	.428	-.274	.219	.092	.155	.082
약한 - 강한	-.392	.421	-.248	.003	.270	.044	-.035
요인 3: 활동성							
의향적인 - 내향적인	-.044	.032	.713	-.079	-.052	-.233	.021
자주적인 - 의존적인	.156	-.040	.647	.002	-.129	.006	-.191
대범한 - 소심한	.038	.079	.633	.003	.193	.055	.309
적극적인 - 소극적인	.338	.160	.622	-.063	.110	-.107	-.014
활동적인 - 비활동적인	.209	.375	.565	-.328	.051	-.023	.035
개성적인 - 평범한	.128	.176	.561	-.153	.111	-.342	.170
노련한 - 미숙한	.366	.020	.458	-.041	-.279	.017	.306
독창적인 - 창의적이지않은	-.076	.359	.435	.224	.314	-.038	.166
진보적인 - 폐쇄적인	.180	.389	.413	-.163	.150	.061	.326
솔직한 - 위선적인	.117	.361	.390	.17	.129	.377	.044
지배적인 - 복종적인	.101	-.312	.379	-.206	-.373	.048	.223
난폭한 - 온순한	.128	-.232	.340	-.271	.322	-.067	.288
요인 4: 예의정숙성							
깨끗한 - 깨끗하지않은	.252	.005	.138	.689	-.097	-.180	-.141
예의바른 - 무례한	.103	.238	-.134	.643	-.013	.002	.131
단순한 - 복잡한	.096	.005	-.104	.637	.207	.231	-.207
조용한 - 시끄러운	.103	.001	-.354	.510	-.094	.152	.238
단정한 - 단정치못한	.304	.096	-.089	.450	-.403	.042	.084
요인 5: 능력							
유능한 - 무능한	-.177	.008	-.201	-.296	.599	.199	-.025
부지런한 - 게으른	-.112	.104	.024	.139	.561	-.070	.062
차분한 - 성급한	.048	.288	.125	-.163	.533	-.078	-.021
신중한 - 경솔한	-.276	.094	.033	.021	.510	-.106	.002
요인 6: 과시성							
화려한 - 소박한	.039	-.144	-.218	.060	.006	.752	.001
사치스러운 - 검소한	-.004	-.211	-.114	.052	-.182	.714	-.173
요인 7: 예민성							
예민한 - 둔한	-.022	.087	.111	.108	-.200	-.119	.686
공격적인 - 협동적인	.149	-.222	.125	-.122	.306	-.144	.630
고유치	6.362	5.295	5.024	3.020	2.884	2.827	2.105
설명변량 (%)	12.48	10.38	9.85	5.92	5.66	5.54	4.13
신뢰도 ( $\alpha$ 값)	.880	.830	.826	.690	.567	.715	.434

의정숙성' 요인으로 분류되었으며, 5.92%의 변량을 설명한다. 요인 5는 유능한, 부지런한, 신중함의 형용사로 이루어져 업무 능력과 관련된 성격으로 판단되어, '능력'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6은 화려한, 사치스러운 의 형용사들이 과시적 인상의 내용을 이루므로, '과시성' 요인으로 명명하였고, 요인 7은 예민한, 공격적인으로 구성되므로 '예민성'으로 명명하였다.

2) 의복 스타일에 따른 성격인상의 차이

매니쉬 스타일의 의복을 착용한 경우와 페미닌 스타일의 의복을 착용한 경우, 성격인상 요인에서 그 차이가 있는지 <표 2>에서 살펴보았으며, 지적특성과 정적특성 요인에서 매우 높은 유의차를 보였다. 즉, 매니쉬 스타일을 착용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적특성에 대해 긍정적인 인상을, 정적특성에는 부정적인 인상을 형성하였으며, 페미닌 스타일을 착용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정반대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극물로 제시한 의복 스타일의 대별되는 특성을 보여주는 결과이며, 착용한 의복유형에 따라 Yin-Yang 성격특성이 다르게 지각되고(Douty, 1963), 드레스보다 슈트 착용의 여성이 더 전문적으로 지각됨(Thurston et al., 1990; 강혜원에서 재인용, 1995)을 지지한다. 한편, 페미닌 스타일이 매니쉬 스타일보다 화려하다고 생각되어졌으며, 유의하진 않으나( $t=-1.927, p<.06$ ) 예의정숙성 요인에 있어서도 페미닌 스타일을 착용한 경우가 매니쉬 스타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활동성 요인에서는 의복 스타일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두 스타일 모두 정상차림으로, 지각자들이 캐주얼 의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동성이 낮은 복종으로 인식하여 평가에 있어 두 스타일의 차이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3) 성격인상 요인에서의 순서효과에 따른 인상 차이

성격인상 요인에 대한 첫인상과 2차인상간에 차이가 있는지 밝히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으며, 자극

<표 2> 의복 스타일에 따른 성격인상의 차이

인상요인	매니쉬 스타일	페미닌 스타일	t값
지적특성	.477	-.486	5.701**
정적특성	-.329	.335	-3.659**
예의정숙성	-.180	.183	-1.927
과시성	-.222	.226	-2.391*

\* $p<.05$ , \*\* $p<.01$

물 제시 A의 경우(매니쉬 스타일 - 페미닌 스타일 순)와 B의 경우(페미닌 스타일 - 매니쉬 스타일 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결과를 <표 3>과 <표 4>에 각각 제시하였다.

자극물 제시 A의 경우, 지적특성과 정적특성 요인에서 높은 유의수준으로 첫인상과 2차인상이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주어진 의복 단서의 특성이 인상의 두 하위 차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즉, 첫인상에는 매니쉬 스타일의 주요 특성이 반영되었으며, 2차인상 형성시에는 페미닌 스타일의 주요 특성을 보인다. 반면, 자극물 제시 B의 경우는 지적특성 요인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정적특성 요인에서는 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는 먼저 페미닌 스타일에 의해 형성된 여성적 특성의 인상은 이후 스타일이 변하여도 유지된 것으로 첫인상 형성시 각각의 인지구조 내에서 여성과 여성적 특성의 일치된 인상이 보존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능력 요인에서는 두가지의 자극물 제시 방법 모두에서 첫인상에서는 유능하고 차분하다는 인상을 주었으나, 2차인상에서는 상반된 의복단서에 의해 무능하고 경솔하다는 인상을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착용자의 의복 이미지가 일관되지 못한 것을 지각자가 무능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생각되며, 소모임 상황에서 적절하지 못한 이미지 관리가 능력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한다. Johnson과 Roach-

<표 3> 인상형용사 요인에 대한 인상차이 t-test: 자극물 제시 A의 경우

인상 요인	첫인상 (매니쉬 스타일)	2차인상 (페미닌 스타일)	t 값
지적특성	.406	-.792	5.513**
정적특성	-.346	.656	-4.489**
능력	.195	-.578	3.028**

\* $p<.05$ , \*\* $p<.01$

<표 4> 인상형용사 요인에 대한 인상차이 t-test: 자극물 제시 B의 경우

인상 요인	첫인상 (페미닌 스타일)	2차인상 (매니쉬 스타일)	t 값
지적특성	-.156	.555	-3.080**
예의정숙성	.393	-.115	2.100*
능력	.664	-.259	4.123**
과시성	.312	-.321	2.046*

\* $p<.05$ , \*\* $p<.01$

Higgins(1987)는 면접상황에서 적절한 의복을 착용할 때 능력평가가 가장 높다고 하였는데, 의복의 적절성과 능력의 관계에 있어 유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페미닌 스타일을 먼저 제시한 경우에서만 유의하게 예의정숙성과 과시성 요인에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 또한 의복 스타일에 의한 영향이 인상 형성에 작용한 것으로, 페미닌 스타일에 의해 형성된 첫인상이 이후 매니쉬 스타일에 의해 인상이 부정적으로 변화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첫인상은 의복 스타일에 따라 부분적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으며, 그 제시되는 순서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즉, 매니쉬 스타일을 먼저 제시한 경우는 이후 지적, 정적 특성에서 페미닌 스타일에 의한 최신효과가 나타났으며, 나머지 인상 차원에 대해서는 초두 효과가 유지되었고, 페미닌 스타일을 먼저 제시한 경우는 정적 특성에 대한 초두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인상 형성**

**1) 의복 스타일에 따른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차이**

사진 자극물에 제시된 지각대상자의 신체/ 생물학적 특성을 포함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추측하도록 한 결과, 연령은 22세에서 30세 범위로 평균 26.26

세로 평가되었으며, 신장은 155cm에서 173cm의 범위이며 평균 164.0cm로 평가되었다. 또한, 주로 대학교 졸업 정도의 학력에 사무직, 전문직에 종사하며, 미혼인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종종, 중상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 주로 여자 형제가 있을 것으로, 신체적 매력도는 중간 정도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지각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인상에 있어서의 의복 스타일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표 5>와 같이 매니쉬 스타일을 착용한 경우, 평균 26.53세로 페미닌 스타일의 경우의 평균 25.98세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에서 매니쉬 스타일을 착용한 경우 대졸이, 페미닌 스타일의 착용한 경우 대학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도 대상자에 대한 연령 지각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직업유형에서는 매니쉬 스타일을 착용했을 경우, 사무직(38.2%)과 전문직(36.4%)의 비율이 높았던 반면, 페미닌 스타일을 착용한 경우는 사무직(52.9%)과 학생(23.5%)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정장 차림이 사무직에 적합한 차림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며, 한편, 매니쉬 스타일이 전문직 비율이 높은 것은 슬랙스 슈트 차림이 더 전문적으로 지각된다는 앞선 결과와 일치한다. 신체매력도는 매니쉬 스타일을 착용했을 경우, 중하, 중중의 비율이 63.7%로 평균 3.80의 점수를 받았으며, 페미닌 스타일을 착용했을 때에는 중

<표 5> 의복 스타일에 따른 인구통계학적 특성 차이

인구통계학적 특성		매니쉬 스타일		페미닌 스타일		χ <sup>2</sup> 값 (유의확률)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학력	고졸	4	7.3	2	3.9	8.165* (.043)
	대학생	2	2.6	11	21.6	
	대졸	43	78.2	33	64.7	
	대학원이상	6	10.9	5	9.8	
직업	무직	0	0	2	3.9	18.168** (.003)
	사무직	21	38.2	27	52.9	
	영업/판매직	9	16.4	1	2.0	
	전문직	20	36.4	8	15.7	
	학생 기타	4 1	7.3 1.8	12 1	23.5 2.0	
신체매력도	하	7	12.8	3	5.6	15.039* (.035)
	중하	14	25.5	6	11.1	
	중중	21	38.2	19	35.2	
	중상	9	16.4	17	31.5	
	상	4	7.3	9	16.8	

\*p<.05, \*\*p<.01



중, 중상의 비율이 66.7%로 평균 4.46의 상대적으로 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는 의복 스타일이 신체의 매력정도의 평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매력적인 의복착용은 외모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 유도함(강혜원, 1995)을 나타낸다.

2) 인구통계학적 특성에서의 순서효과에 따른 인상 차이  
매니쉬 스타일의 의복을 먼저 제시한 자극물 제시 A의 경우, 첫인상과 2차인상 형성간에 인구통계학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페미닌 스타일을 먼저 제시한 B의 경우는 첫인상과 2차인상간에 차이를 보였다.

<표 6>과 <표 7>은 지각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인상 형성의 차이를 각각 t-test와 교차분석을 통해 검정한 것으로, 연령, 형제관계, 직업, 신체매력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매니쉬 스타일을 착용한 2차인상 형성에서 유의하게 연령이 높았으며, 신체매력도는 유의하게 낮아져 인상 형성시 의복 스타일에 의한 영향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또한, 직업 유형에서 처음 페미닌 스타일에서는 사무직의 비율이 높은 반면, 이후 매니쉬 스타일을 제시한 2차인상

<표 6> 지각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인상의 차이: 자극물 제시 B의 경우

인구통계학적 특성	첫인상 (페미닌 스타일)	2차인상 (매니쉬 스타일)	t 값
연령	25.69	26.85	-2.793**
신체매력도	4.54	3.62	2.301*

\*p<.05, \*\*p<.01

에서는 전문직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던 것도 위와 유사한 결과로 해석되며, 형제관계는 처음 페미닌 스타일에서는 응답자의 61.5%가 여형제만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였으나, 2차인상에서 응답자의 65.4%가 여형제, 남형제 모두 또는 남형제만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여, 남성적 스타일의 의복 착용시, 지각대상자에게 남형제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향을 보였다.

### 3. 지각자의 주관적 평가와 인상 형성

1) 의복 스타일에 따른 지각자의 주관적 평가의 차이  
매니쉬 스타일의 의복을 착용한 경우와 페미닌 스타일의 의복을 착용한 경우, 대상자에 대해 지각자의 선호와 관련한 평가의 차이를 <표 8>에서 제시하였다. 페미닌 스타일의 의복을 착용한 경우, 모든 평가 문항에 대해 높은 수준에서 유의하게 대상자를 더 보기 좋고, 사귀고 싶으며, 호감이 가고, 자신이 좋아한다고 하였다. 이는 지각자들이 매니쉬 스타일에 비해 페미닌 스타일을 더 선호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 8> 매니쉬 스타일과 페미닌 스타일 착용시 평가 차이

주관적 평가	매니쉬 스타일	페미닌 스타일	t 값
보기좋은	4.44	5.26	-2.986**
사귀고싶은	4.00	4.90	-3.427**
호감가는	3.80	4.75	-3.125**
내가좋아하는	3.62	4.30	-2.178*

\*p<.05, \*\*p<.01

<표 7> 지각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인상의 차이: 자극물 제시 B의 경우

인구통계학적 특성	페미닌 스타일		매니쉬 스타일		$\chi^2$ 값 (유의확률)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직업	무직	2	7.69	0	0	14.215* (.014)
	사무직	17	65.38	10	38.46	
	영업/판매직	0	0	3	11.54	
	전문직	3	11.54	12	46.15	
	학생	3	11.54	1	3.85	
	기타	1	3.85	0	0	
형제관계	여형제만	16	61.54	6	23.08	7.991* (.046)
	남형제만	2	7.69	4	15.38	
	여, 남형제 모두	6	23.08	13	50	
	혼자	2	7.69	3	11.54	

\*p<.05, \*\*p<.01

2) 지각자 평가에서의 순서 효과에 따른 인상 차이

지각자의 주관적 평가에서도 자극물이 제시되는 순서에 의해 인상 형성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표 9> 과 <표 10>에서 살펴 볼 수 있다. 결과를 비교하여 보면, A의 경우보다 B의 경우 지각자의 평가에 변화가 크게 나타나 후에 제시된 자극물에 의한 2차인상이 유의하게 달라졌다. 즉, 매니쉬 스타일을 먼저 제시한 후, 페미닌 스타일을 제시했을 때에는 호감가는의 평가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페미닌 스타일을 먼저 제시하고, 나중에 매니쉬 스타일을 제시한 경우에는 보기좋은, 사귀고싶은, 호감가는 의 세문항에서 높은 수준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2차인상 형성시 전반적으로 낮게 평가되어졌다. 이는 매니쉬 스타일이 전반적으로 지각자에 의해 부정적 인상을 형성하였다고 볼 때, 부정적 단서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나 인상 형성 과정에서는 부적 효과가 일반적으로 관찰되고 있으며(Fiske, 1980), 따라서 이를 기초로 하여 부적 인상이 정적 인상보다 일관적이거나 더 변화되기 어려운 까닭을 설명한다는 조공호(1998)의 견해와 일치되는 결과이다.

<표 9> 지각자의 주관적 평가 차이 t-test: 자극물 제시 A의 경우

주관적 평가	첫인상	2차인상	t 값
	(매니쉬 스타일)	(페미닌 스타일)	
호감가는	3.90	4.86	-2.333*

\*p<.05, \*\*p<.01

<표 10> 지각자의 주관적 평가 차이 t-test: 자극물 제시 B의 경우

주관적 평가	첫인상	2차인상	t 값
	(페미닌 스타일)	(매니쉬 스타일)	
보기좋은	5.35	4.23	2.705**
사귀고싶은	4.88	3.69	2.922**
호감가는	4.65	3.69	2.706*

\*p<.05, \*\*p<.01

V. 결 론

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인상 형성 연구의 기본전제인 한번 형성된 인상은 고정적이고 변화에 저항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순되는 인상의 얼굴에서조차도 그들의 처

음 인상을 일관되게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가설 하에, 동일인물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복 단서를 제시함으로써 첫인상과 2차인상의 차이를 순서효과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았으며,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격 특성에 관련된 인상은 지적특성, 정적특성, 활동성, 예의정숙성, 능력, 과시성, 예민성 요인의 7개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둘째, 지각자들은 인상 형성시 두드러진 단서로서의 의복을 사용하게 되는데, 의복 스타일에 따라 연령, 직업유형, 신체매력도 등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차이를 보여 매니쉬 스타일을 착용한 경우, 연령을 보다 높게, 신체매력도는 낮게 평가하였다. 또한, 성격인상의 지적특성 요인과 정적특성 요인에 대하여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매니쉬 스타일은 지적특성에 높은 정적상관을, 페미닌 스타일은 정적특성에 높은 정적상관을 보여 자극물로 제시한 의복 스타일과 인상이 일치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셋째, 상반되는 의복 단서가 제시되는 경우, 순서 효과에 의해 첫인상과 2차인상 형성에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다. 페미닌 스타일의 자극물이 먼저 제시된 경우, 이후 매니쉬 스타일의 자극물에 대해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인상에서는 연령, 직업, 형제관계, 신체매력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성격인상 요인에서는 지적특성, 예의정숙성, 능력, 과시성 요인에서 높은 유의수준으로 다르게 인상이 형성되었고, 또한 지각자의 주관적 평가에서도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이는 첫인상이 형성된 이후에도 두드러진 의복 단서에 의해 인상이 변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매니쉬 스타일이 먼저 제시된 경우에는 2차인상 형성에 변화가 비교적 적었는데, 지각자들의 주관적 평가로 미루어 매니쉬 스타일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인상을 형성했다고 판단할 때, 지각자는 먼저 부정적인 인상을 형성한 이후에는 다음에 긍정적인 단서가 제시되더라도 그 영향이 적으며, 앞서 언급한 결과 또한 후에 제시되는 부정적 단서가 인상 형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페미닌 스타일을 먼저 제시한 경우, 이후 2차인상 형성시 정적특성 요인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여성이 페미닌 스타일을 착용했을 때, 착용자와 의복 스타일의 일치에 의한 긍정적인 인상이 초두 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즉, 사교적이고 매력적인 정적특성은 지각자의 주관적 평가와 정적으로 가장 높은 상관관계

를 보이는 것으로 소모임 상황에서 여성 대상자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긍정적 특질이며, 지각자의 인지 구조내에서 여성과 긍정적 특성의 일치된 인상이 일관되게 유지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인상 형성에서 의복의 영향이 순서효과의 초두효과와 최신효과 모두에서 기능한다는 일반적 신념을 강화시켰던 Chowdhary(1988)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였으며, 의복 스타일과 인상의 차원에 따라 초두효과와 최신효과에 차이가 나타났다. 주로 초두효과는 부정적인 자극물의 중심 특성과 긍정적 자극물의 긍정적 특질에 대해 나타났고, 최신효과는 부정적인 자극물에 의한 영향이 다양한 인상차원에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지각자의 주관적 평가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처음에 형성되는 부정적인 인상은 변화되기 어려우므로, 중요한 만남이나 모임을 가질 때에는 첫인상에 주의하여 부정적인 인상을 주지 않도록 의복의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상황에 적절하고 지각자가 중심특질로 고려하여 평가하는 특성을 중심으로 관리한다면, 첫인상 뿐 아니라 이후의 만남에서도 지속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사적인 모임에서의 여성에 대한 평가였으므로 인상 형성에서 여성의 정적인 특질이 중시되었지만, 직장 상황이나 다른 상황에서는 다른 특질이 중시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 2. 연구의 제한점 및 의의

인상 형성 연구시 자극물의 설계에 있어, 지각대상자는 단일모델에 의한 편파제거를 위해 두 명 이상의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본 연구에서는 지각대상자가 1명이며 한국인의 평균 체형에 비해 다소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므로 모델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어,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몇 가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먼저 인상 측정도구에 있어 사회심리학 분야에서 사용되는 성격 형용사들을 포괄적으로 포함하여 형용사쌍을 구성하였고, 신체적 특성을 포함한 인구통계학적 특성 등 인상의 다양한 하위차원을 밝혀 보고자 하였다.

또한, 첫인상은 고정적이지 않으며, 첫인상이 형성된 이후에도, 그 다음 만남에서의 또 다른 자극단서

들에 의해 인상이 변화될 수 있음을 밝힘으로써, 유동적이고 표면적인 현대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모임과 만남 등에서 상대방에 대한 인상을 형성함에 있어 의복단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짐을 시사하였다.

그러므로, 자신이 원하는 인상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조작 가능한 의복 단서들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꾸준히 일관성있게 인상을 관리해야 하며, 상황에 적합한 중심 특질을 중점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향후에는 지각자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지각자 변인을 고려할 뿐 아니라, 의복을 착용하는 상황을 다양하게 다루어 상황적 맥락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혜원. (1995). *의상사회심리학*. 서울: 교문사
- 고애란. (1990). *Suit의 색과 신체노출이 정수성인상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청자, 장선철, 최세리, 김숙영. (2002). *심리학의 이해*. 서울: 동문사.
- 박성은. (1993). *의복이 대인지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대생의 캠퍼스 웨어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신자. (2000). *심리학의 이해*. 서울: 형설출판사.
- 오세진. (1999). *인간행동과 심리학*. 서울: 학지사
- 이경화, 라수임. (1999). 의복의 인상 형성이론에 대한 연구 동향. *복식문화연구*, 7(1), 117-127.
- 조금호. (1988). 서로 다른 의존상황과 인상차원에서의 대상 인물의 특성에 따른 부적효과의 차이. *사회심리학연구*, 4(1), 325-352.
- 조금호, 김인자. (1987). 의존상황, 인상평가차원과 특성에 따른 부적 효과의 분화. *사회심리학회연구*, 3(2), 85-112.
- 정양은. (1982). *사회심리학*. 서울: 법문사.
- 정인희, 이은영. (1993). 의복이미지의 계층구조에 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7(4), 529-538.
- 한덕용. (1993). 성격특성의 지각차원. *한국심리학회지*, 7(1), 198-212.
- Ash, S. E. (1946). Forming impressions of personality.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41, 258-290.
- Burns L. D., & Lennon S. J. (1993). Effect of Clothing on the Use of Person Information Categories in First Impressions. *Clothing & Textiles Research Journal*, 12(1), 9-15.
- Chowdhary, U. (1988). Instructor's attire as a biasing factor in students' ratings of an instructor. *Clothing & Textiles Research Journal*, 6(2), 17-22.
- Damhorst, M. L. (1990). In search of a common thread: Classification of information communicated through dress.

- Clothing & Textiles Research Journal*, 8(2), 1-12.
- Douty, H. I. (1963). Influence of clothing on perception of person. *Journal of Home Economics*, 55(3), 197-202.
- Fiske, S. T. (1980). Attention and weight in person perception: The impact of negative and extreme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 889-906.
- Horn, M. J., & Gurel, L. M. (1981). *The second skin: An interdisciplinary study of clothing (3rd ed.)*. Boston: Houghton Mifflin.
- Johnson, K., & Roach-Higgins, M. E. (1987). Dress and physical attractiveness of women in job interviews. *Clothing & Textiles Research Journal*, 5(3), 1-8.
- Sears, D. O., Freedman, J. L., & Pelpeau, L.A. (1985). *Social psychology (5th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